

종교 없이 자란 첫세대가 발견한 '얼굴'

더글라스 커플랜드의 <사막에서>와 REM의 <내 믿음을 잃어버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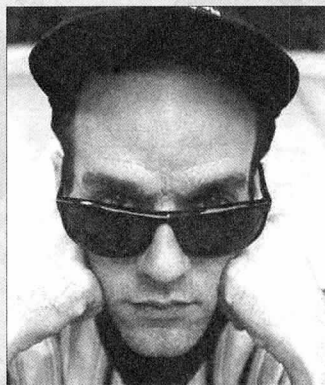
김연수 | 소설가

“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팜 스프링스를 향해 남쪽으로 차를 몰던 중이었고, 거대한 무(無)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 나는 렌터카 밖으로 비치는 풍경의 광활함에 (아무것도 없음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까지 펼쳐질 수 있는가!) 끊임없이 놀라면서, 모하비 사막의 비탈과 저지대를 오르내리고, 15번 고속도로의 흰색 시멘트 차도 위에 있는, 오래 전 자동차 충돌사고로 남은, 로트코의 그림 같은 바퀴 미끄러진 자국들을 세기도 했다.”

세계의 끝 그리고 홀로 남은 자신

1990년대 X세대의 내면풍경을 사막이라는 자연에 빗대 표현한 더글라스 커플랜드의 <사막에서>는 이와 같이 시작한다. 밴 앨런 방사능대라는 묘한 것 덕분에 서부 전지역에서 송출되는 라디오방송을 모두 들을 수 있는, 한없이 삭막한 모하비 사막의 풍경. 주인공은 라디오방송을 들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거기서 나오는 이런저런 문화적 기억과 정보의 단편들이 모여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정보구조물이 내 진정한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질적인 내 지역사회다.” 이 말은 곧 X세대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는 또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좀더 주인공을 따라 가보기로 하자. 나이는 서른한살. 자동차 트렁크 뒤에는 북 라스베이거스의 카이저 퍼머넌티 병원에서 훔친 주사기 2천개와 멕시코에서 밀수된 50cc짜리 패러스톨린 스테로이드제 주사약 1,440개가 든 27인치 미츠비시 텔레비전 포장상자가 들어 있었다. 심드렁한 내용의, 혹은 예수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차를 몰던 주인공은 베이커라는 마을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마이클 스타이프(왼쪽)와 더글라스 커플랜드. 종교 없이 자란 첫 세대인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를 찾아 나서 자신을 발견한다. 커플랜드의 소설은 '나'에 대한 탐구를 종교적인 구도로까지 끌어올린 작품이다.

전해 듣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사막의 외진 곳에 가서 그 미츠비시 포장상자를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세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한가운데서 렌터카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사막, 사막, 사막. 그리고 자신만이 남는다.

쿠트 보네거트, 리처드 브라우티건으로 이어지는 미국 미니멀리즘 소설(그런 게 있다면)의 계보는 독일의 바덴-뉘링겐에서 태어나 캐나다 밴쿠버에서 성장한 작가 더글라스 커플랜드에게로 이어진 감이 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소설집 <신을 찾아가는 아이들>(문학동네)에서 커플랜드는 오감의 기억으로만 재생되는 X세대의 묵시록을 매력적으로 그려냈다. 그 가운데 사막 애

기를 담은 <사막에서>는 ‘마이클 스타이프를 위해’란 부제와 함께 “당신은 종교 없이 자란 첫 세대다”라는 글이 문패처럼 걸려 있다.

마이클 스타이프란? 두말 할 나위 없이 조지 아대 칼리지밴드 출신인 REM의 보컬리스트 마이클 스타이프를 말한다. 1980년대 내내 차트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히피 세대의 정치적 음악잡지인 <롤링스톤>은 1983년 일찌감치 REM을 ‘올해의 밴드’로 선정할 바 있다. 다시 마이클 스타이프란? 더글라스 커플랜드 세대, 1980년대에 지하에 머물다가 1990년대 지상으로 솟구쳐오른 X세대의 예언자다. 비트세대들에게 재즈연주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X세대를 위한 송가

<사막에서>에는 REM의 노래가 한곡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패처럼 내건 “당신은 종교 없이 자란 첫 세대다”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더글라스 커플랜드가 염두에 두고 쓴 노래는 1991년 발표한 앨범 <그런>에 담긴 히트곡 <내 믿음을 잃어버리며>(Losing My Religion)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는 그밖에도 마이클 스타이프의 영원한 주제가 되풀이된다. “누구도 네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누구도 네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등의 가사가 담긴 <드라이브>(Drive), “이 세계는 우리 귀 주위에서 무너지고 있어. 라디오를 들었지만 들리지 않아”라는 가사의 <라디오 노래>(Radio Song) 등이 들어 있다.

‘종교 없이 자란 첫 세대’가 사막에 가서 만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얼굴이다. 커플랜드는 이렇게 이 소설을 끝낸다. “고독의 가장자리까지 밀렸던 사람. 아마 거기서 떨어져버렸을 사람. 그리고 다시 기어올라왔을 때 세계가 이전과 조금도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위한 얼굴.” 그 얼굴이 주는 깊이는 저널리즘이 마구 난도질한 ‘X세대’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마이클 스타이프와 더글라스 커플랜드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다.●